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장성군 “예뻐진 도로 보행자 안전 높였다”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21곳 대대적 정비



장성군 장성읍의 한 골목길이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예쁘게 단장돼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환경 개선 효과를 주고 있다.

장성읍 매화8길로 불리는 이 구간은 평소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로 이용되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장성군이 2010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평소 보행자와 차량이 얽혀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이었으나, 최근 차로는

적색으로, 보행로는 하늘색으로 구분해 도색하고 모든 지면을 미끄럼 방지포장을 실시해 안전도를 크게 높였다.

장성읍의 주민은 “도로 전체가 색깔이 칠해져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차량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있다”며 “특히 보행자 구간이 따로 구분돼 운전자나 보행자 서로에게 편하고 안전하게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올해 초부터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 약자의 보행안전을 강

화하기 위해 21개소를 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보호구역 수요조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장성경찰서와 보호구역 사업에 대해 협의한 장성군은 오는 10월까지 총 6억2,000만원을 투입해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노면표시 설치 등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총정비할 계획이다. 또 군민을 상대로 보호구역 내 저속운전과 주차금지 준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방침이다.

개선사업 대상 구역은 초등학교 보호구역 13곳, 어린이집 보호구역 5곳, 노인 보호구역 3곳이다. 현재 장성읍 기복어린이집을 비롯해 동화초등학교, 율평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정비를 완료했다. 노인 보호구역은 영랑약로원, 기산리게이트볼장, 장성공원 인근이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나 어르신은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교통 약자다”라며 “안전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장성군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흥군, 생활개선회 순회 능력개발 교육

고흥군이 농촌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농촌생활 활력 찾기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읍면 순회 능력개발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8일간 한국생활개선고흥군연합회 회원 480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전문기술 함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폭과 활력을 이용한 실크 스카프 천연 염색 수업과 농작업 안전사고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후에는 읍면별로 총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에 실시할 다양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개선회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신안군,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 29일까지 관내 학생4-H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자은초등학교 등 4개교를 대상으로 ‘학교4-H회 과제활동’에 필요한 화훼류 및 채소 모종과 퇴비·비료 지원을 하였다.

이번에 추진한 ‘학교4-H회 과제활동’은 관내 자은초, 증도중, 흑산중, 안좌고 70여명의 학생4-H회원이 참여하는 과제활동으로 직접 경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땅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영농활동 체험으로 진행하였다.

각 학교의 교내에 화단과 텃밭을 직접 만들어 농심함양을 위해 텃밭 가꾸기 과제활동으로 고추, 토마토, 가지 등 7종의 모종과 화

단 조성하기 해바라기, 부용화 등 각종 모종을 학교별 4-H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직접 심고 가꾸었다.

학교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매년 학교교육과 연계한 산학협력차원에서 과제활동을 위한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4-H 회원들은 직접 과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자은초등학교 4-H지도교사는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여 학생들의 농촌사랑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수확한 농산물로 인근 경로당,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4-H기본이념을 실천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 집중호우 피해 신속한 응급복구에 나서

인력·장비 등 긴급투입하며 군민 불편해소 총력

보성군은 집중호우 피해에 신속한 응급복구와 복구 현장 집중점검으로 군민 불편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최대 457mm의 많은 비가 쏟아져 도로와 농경지가 일부 잠기고 주택 및 차량이 침수되는 등 130여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민·관·군·유관기관 합동으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며 신속한 긴급구조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재방이 붕괴된 회전면 모원저수지는 굴삭기를 이용한 하류 하천 정비 및 물길조성을 통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침수방지용 수

방재제 및 양수기 등을 배치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단진·단수된 보성을 다세대 아파트는 40여명의 공무원 소방대와 양수기 7대를 동원하여 긴급복구 작업과 함께 각 세대별 생수를 보급했으며, 소화전을 이용한 각 층별 끊어진 전기·통신망 복구가 완료됐다.

교부실 등이 물에 찬 보성여중은 군부대 40명이 투입되어 배수작업을 했고, 토사가 유출된 보성남초 및 주차장과 축대가 붕괴된 주택 및 농공단지 도로 사면도 군·경이 투입되어 복구가 완료됐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지역 전수조사 및 각종 공사현장과 산사태, 급경사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군은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추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기상특보 상황을 전파하고, 마을방송 및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한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피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등의 긴급투입으로 복구작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반약화 및 시설물 파손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어 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구례군, 야생화 꽃나물 상품 완판

제19회 부산국제 차공예박람회 야생화 꽃나물 홍보부스 성황



구례군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9회 부산국제 차공예박람회에 참가해 구례군 대표 야생화 꽃

나물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으로 부산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야생화 꽃나물을 이용한 머핀, 쿠키, 잼, 떡, 즉석 비빔밥 등 야생화 꽃나물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며 4일 동안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창조지역사업 야생화 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보존화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시들지 않는 꽃’이라 불리는 보

존화를 이용한 상품을 전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 관람객은 “시들어 버리는 꽃을 이용하여 아름다움을 오래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있구나”라고 신기하고 아이디어에 감탄을 나타냈다.

군 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창조지역사업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야생화 꽃나물 6차 산업화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야생화 꽃나물을 이용한 색다른 상품을 적극 발굴 개발하여 농가 소득화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영광군,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 양성 2차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6월 28일부터 온오프라인 융합시대의 스마트 농업 실현으로 새로운 농산업 가치 증진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 양성 2차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정보교육장에서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비즈니스리더 양성 2차 교육은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차원에서 다양한 고객 접점 채널을 활용하여 농장 브랜드화 및 스토리텔링으로 농산업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계획했으며 농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용 스티커 제작을 비롯한 동영상 마케팅 등 실습 중심의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채널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경영체의 핵심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흥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